

# “도급 줬다고 책임 면제 안돼...발주자 처벌법 제정 필요”

정의당 주최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 불법 하도급·부실한 인력 등 구조적 문제 심각 공기 단축·이윤 극대화 요구 불가능 구조 만들고 원·하청·작업자 역할·책임 다하는 제도 정착해야

“도급으로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관련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정의당 장연주 광주 시의원 주관으로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인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부와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안홍섭 교수는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안전책무 합리화로 건설산업 패러다임 혁신’이라는 발제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시공자·감리자·설계자·지자체(감시기관)·원청사·하청사·작

업자 등의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주자가 시공업체나 원청사들에게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 대표를 처벌 가능하게 할뿐이지 발주자 책임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주자는 물론 건설사와 감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안 교수는 발제에서 구조적 위기에 빠진 건설 산업 현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건설현장에는

신규인력 유입 없이 고령자마저 은퇴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산업의 기초인 중견협력업체 취약화가 진행됐고, 비용절감이 목적인 발주자에 의해 부실설계 위험의 여지가 높은 설계·엔지니어링, 보조원으로 전락한 안전감시가능, 제값도 못 받고 책임만 있는 감리자 등의 문제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탓에 건설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산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현장 실태와 대안-건설안전특별법 제정부타’의 주제로 발표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부와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건설안전 특별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안전한 시공법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공사 기간·공사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강 위원장은 “학동 철거공사는 크레인과 작은 장비들을 동원해야 할 공사였는데 비용과 기간을



20일 광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장연주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줄이기 위해 골작기포만 작업하다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현장의 공사도 평균 양생기간이 4-5일밖에 안 걸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산재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화정 아이파크에 불량 콘크리트 쓰였나

납품 레미콘 업체 10곳 중 8곳 2020~2021년 점검서 ‘부적합’ 판정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공사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10곳 중 8곳이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8곳의 업체중 한 레미콘 회사는 2020년과 2021년 2번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이나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제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 있었다.

실태점검(2020년 7~11월, 2021년 5~7월)이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콘크리트 공사 시작(2020년 3월부터) 이후 였다는 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크리트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10일째인 20일, 붕괴 건물 내부에서 수색대원이 잔해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은혜 의원은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의 붕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동신대, 올해 등록금 동결·입학금 폐지

동신대학교가 2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하했던 입학금은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한다.

동신대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최근 14년 중 13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동참해왔다.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프로그램, 장학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취업 잘 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동신대의 대학알리미 정보 공시 기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402만원, 연 평균 등록금은 665만원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60.4%에 달한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1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5193명으로, 전체 재학생 6138명(정보공시 기준) 중 84.5%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특히 1학기 전체 장학금은 2242명으로 36.5%에 달했다.  
/채희중 기자 chae@

## 전남교육청, 세자녀 이상 가구에 교육비 지원

초·중·고생 1인당 매년 10만원

전남교육청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 씩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104억원을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생 체험학습비(실비 지원)의 지원 대상도 4자녀 이상 가정에서 3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다. 중학생 체험학습비(실비지원), 고교생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1인당 20만원), 고교생 기숙사비(실비지원) 등은 전년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전남도 26일까지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점검

전남도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34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

매하도록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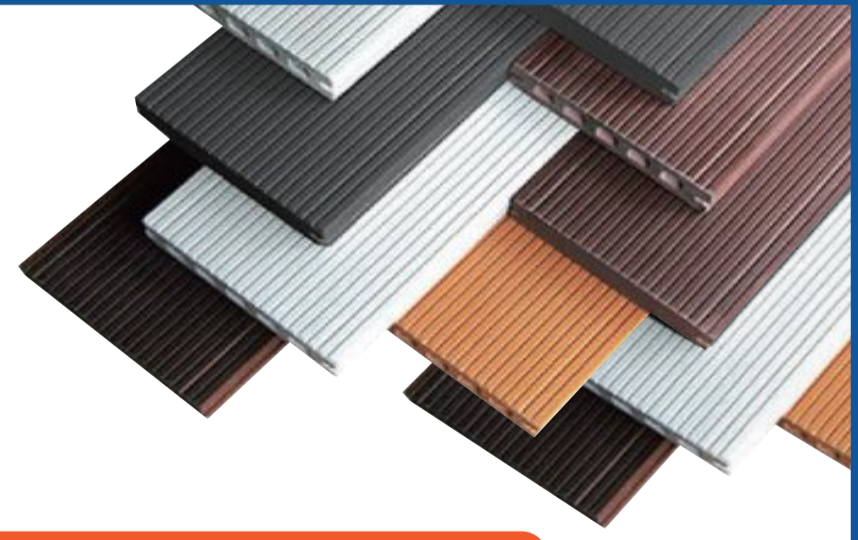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